

M 재테크 Money

고령화 사회 '실버보험' 어떤 것이 좋을까

30~40대 '연금형' · 50대는 '보장형'

핵 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라 실버보험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다양한 실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노후질환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또 만기 환급금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실버보험은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대신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아 효도보험으로도 불린다.

손보사들의 실버보험은 상품에 따라 최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최

부모 대신 자녀들이 가입 '효도 보험' '피오레 ~' 최고 1억8,000만원 지급

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 등에 따른 간병 비용으로 3천만~6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체상해 사고에 따른 치료비도 보장한다.

대한화재의 '피오레 라이프케어 CI 간병보험'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때도 최고 1억8천만원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신동아화재의 '카네이션 간병보험'

은 치매때 최고 5천만원의 간병비용과 31일 이상 입원때 최고 750만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또 제일화재의 '건강앓 실버보험'은 65세, 70세, 75세가 되는 해에 최고 300만원의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고 사후 10년 동안 매년 100만원의 추보비용을 제공한다.

생보사들의 실버보험(장기간병보험)은 보장형과 연금형 2종류가 있다.

보장형은 상대적으로 싼 보험료로 질병에 걸렸을 때 간병자금을 받을 수 있어 50대 이상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형의 경우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10%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퇴직 이후 노후 생활비와 장기 간병비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하려는 30~40대에 적합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실버행복보험'은 장기 간병상태 진단을 받으면 최초 500만원을, 이후에는 매년 1천200만원을 10년간 지급한다.

동부생명은 노년기에 보험금을 2배로 늘려 지급하는 '해피 플랜 평생 다

보장 건강보험'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30세 남성이 2배 보장 시기를 60세로 선택하면 60세부터는 입원·수술비 등 보험금이 2배로 증가한다.

이들 보험에 들때는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 등의 정의를 확인한 뒤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실버보험은 가급적 보장기간이 길고 노인성 질환과 치매 등 고령층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많이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대차 판매 위축

해외서, 외국 메이커들에 추월 위기

최근 환율급락과 비자금 수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차가 해외의 주력 자동차시장 곳곳에서 도요타 등 외국 메이커들에게 판매실적을 추월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차 시장 1위를 유지해온 러시아에서 3월 판매대수가 8천821대로 포드의 8천868대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는 7천940대를 판매, 도요타(9천497대)와 포드(8천203대)에 이어 3위로 떨어졌다.

현대차는 올해 1~2월 러시아에서 각각 6천806대와 6천303대를 판매해 도요타(1월 4천261대, 2월 4천562대)와 포드(1월 2천32대, 2월 5천50대)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판매 1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4월 러시아 누적 판매대수가 2만9천870대로, 도요타(2만6천29대)나 포드(2만4천163대)보다는 여전히 많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머지 않아 누적 판매 수도 이들 메이커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시장에서도 판매순위가 하락하는가 하면 도요타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큰 상태다.

작년 1~4월 중국에서 7만7천24대를 판매, 1위를 차지했던 베이징현대차는 올해 같은 기간 판매대수가 9만2천515대로 늘었지만 전체 순위는 상하이 GM(12만9천785대)과 상하이 폴크스바겐(11만2천441대), 기서기차(10만669대), 제1기차 폴크스바겐(9만3천547대)에 이어 5위로 떨어졌다.

반면 작년 1~4월 판매대수 3만4천654대로 11위를 기록했던 일본 도요타는 올해 7만6천893대를 판매, 7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현대차를 맹추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에서 상하이 GM과 상하이 폴크스바겐, 제1기차 폴크스바겐에 이어 연간 시장점유율 4위를 차지한 현대차가 올해 중국 판매대수를 30만대로 확대해 3위로 한단계 올라간 뒤 2008년에는 2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상속세제 개편 필요"

전경련 "기업성장 위축 우려"

현행 상속세제는 기업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12일 전경련 출입 기자 세미나에서 한 '기업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세법상 기업상속에 따른 세 부담이 과도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경영자들은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수익을 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기보다는 배당 등 개인자산으로 유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한 할증률 30%까지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이 무려 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상속은 기업경영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이 상속시 자녀가 정부에 납부하는 상속세만 존속시키고 부모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유산세는 영구 폐지키로 한 것을 비롯해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 증여세 기본세율이 10(상속액 1억 원 이하)-50(30억원 초과)에 이르고 지난 2003년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무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까지 도입해 조세불평주의와의 충돌,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 본부장은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제선 승객에 1,000원씩 거둬

아프리카·동남아 등 지원 추진

국제선 여객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승객들에게 1천원씩 거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빈곤퇴치를 위한 항공연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칠레 등 43개국이 가난한 나라의 질병퇴치나 개발원조를 위해 새로운 재원 마련방법을 강구하다 그 중 하나로 각국을 출발하는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에 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국제이나 자리의 등급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항공권에 1천원씩 항공연대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항공연대기금을 걷을 경우 연간 130억원 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건전 기금을 무상원조 총괄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맡겨 가난한 나라의 빈곤퇴치에 사용케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6mm 대형 축구공무늬 피자

미스터 피자는 1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2006 독일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2006mm 대형 축구공무늬 피자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신세계, 깜짝 놀랄만한 세금 낼 것"

구학서 사장, 경영권 편법 대물림 논란 관련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지난 12일 오너 2세인 정용진 부사장으로의 경영권 편법 대물림 논란과 관련, "(부모인 이명희 회장과 정재는 명예회장 주시지분을) 적극적으로 정 부사장에게 (사전)증여하고 이후 상속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만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떼뭇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중국 상하이 산린(三林)점 개점행사 참석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신세계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사장은 "준비가 다 돼있다"고 전제하고 "(이 회장과 정 명예회장 지분의) 3분의 1은 남기고 3분의 2는 정 부사장에게 적극적으로 사전증여

해 세금(증여세)을 낼 수 있고 나머지 2는 상속(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 가을에라도 세금(증여세)을 낼 수 있고, 납부는 주식 등 현금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영권 편법 대물림 논란을 둘러싸고 참여연대와의 법적공방을 앞두고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물려 정 부사장으로의 주식증여와 세금납부 수준 및 경영권 이전이 속도감있게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

현재 신세계의 주식지분 분포는 이 회장 15.33%, 정 명예회장 7.82%, 정 부사장 4.86% 등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으로 납세할 경우 단순 산술로 살펴본 정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일가 지분이 현재의



<구학서 사장>

28%대에 16~17%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구 사장은 또 신세계가 실권한 광주신세계 주식은 정 부사장이 취득한 것을 신세계의 이득기회 권위로 해석해 참여연대가 정 부사장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당시(1998년 4월) IMF체제에 대처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 대주주 개인이 지분 투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으로 판단해야지 (알 수 없었던) 광주신세계의 주가가 30배로 오른 현 상황을 근거로 한 참여연대가 그러는 것은 옳지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Requirements, Annual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HRN, Himi, C&C World, etc.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개인파산 신청자 작년 4만명 육박

전년비 3.2배 급증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선택한 채무불이행자가 지난해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처럼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 갚기를 아예 포기하는 채무자는 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은 모두 3만8천773건으로 전년 1만2천317건에 비해 무려 3.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개인 파산신청은 2000년 32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

건, 2003년 3천856건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2004년 이후 경기부진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법원이 개인 파산신청을 폭넓게 받아주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개인 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었고 1990년대말에도 사례가 거의 없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개인파산은 당분간 급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이 개인 파산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갚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채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모두 19만3천698건으로 전년(28만7천352건)에 비해 32.6%나 줄어들었다.

신용회복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개인 파산신청 증가 외에도 사채가 있거나 보증인이 없어 신복위를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2004년 9월 도입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기청-LG이노텍 '상생운동'

유해물질규제 지원 합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전국 최초로 정부기관과 대기업 상생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LG이노텍 및 중소기업청과 유해물질규제에 대해 일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약내용은 지방청의 보유 장비와 인력 및 분석 노하우를 LG이노텍 및 협력사와 공유, 유해물질 대응에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청은 GC-MS 등 10여종에 이르는 분석장비를 활

용한 시료분석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된다.

LG이노텍은 전문인력 지원, 전처리장비 일부 및 표준시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광주·전남 20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250여개 업체의 LG이노텍 협력사는 유해물질 분석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한편 유해물질(EU)은 오는 7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을 통해 납·수은 등 6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역내수입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유해물질 분석장비가 고가인데다 유지경비가 많이 들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쉽지않아 중소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김성현 연구사는 "이번 LG이노텍과의 협약으로 중소기업들은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로도복권 (제180회)

Table with columns for drawing numbers (02, 15, 20, 21, 29, 34) and prize amounts for different ranks (1st to 5th).